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찬 양 I.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마중물찬양대
 II. 우리 모두 찬양하세 청파찬양대

말 씬 **살아도, 죽어도** 김기석 목사
 거둬기도 다 함께

2부 찬 양 325. 예수가 함께 계시니 다 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
 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는 답 없는 인생에 해답
 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늘에 속한 삶을 기억하
 며 손과 발뿐만 아니라 전 존재를 주님께 조율해 나가십시오.
 날마다 조율된 그 마음으로 성도와 이웃을 대하며 사십시오.

다 함 계 :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의 성을 더욱 견고히 쌓
 아 왔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나의 가치와 판단이 주님
 앞에선 티끌과 같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의 빛에
 잇대어 내 안의 가시와 그림자를 지워 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영화 <북간도의 십자가>
 단체관람

낮집회 / 강의 : 김기석 목사
 저녁성경공부 / 강의 : 이재훈 목사

북간도의 십자가

- 영화 <북간도의 십자가>의 반태경 감독 인터뷰-

100년 전 고향을 떠나 떠나면 북간도로 건너와 독립운동을 하던 조선인들이 있었다. 한손에는 십자가를, 또 한손에는 총을 든 그들은 교회와 학교를 세워 많은 조선인 아이들을 교육시켰고, 독립군으로 길러냈으며, 조선 독립을 위해 싸웠다.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CBS 다큐멘터리 <북간도의 십자가>는 문동환·문익환·김약연 목사, 윤동주 시인 등 북간도의 꺼지지 않은 별들을 그려낸 작품이다.

Q. 북간도에서 독립운동을 한 기독교도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A.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3·1운동의 의미를 잘 모르지 않나. 나 또한 3·1운동 하면 유관순 열사의 만세운동 정도밖에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다. 전작 <다시 쓰는 루터 로드>가 끝날 때쯤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영화를 준비했다. 기독교방송이니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16명이라는 단순한 역사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너무 뻔했다. 3·1운동을 어떻게 다룰까 고민하다 ‘간도 대통령’이라 불렸던 김약연 목사를 알게 됐다. 마침 지난해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이고, 윤동주 시인이 그의 친구이기도 하다. 누구나 잘 아는 그들을 카메라에 담고 싶었다.

Q. 역사학자 심용환 작가가 세상을 떠나기 전의 문동환 목사(그는 올해 3월 별세했다)를 찾아가 대화를 주고받은 설정은 이 영화를 단순한 역사 다큐멘터리로 만들지 않기 위한 목적인가?

A. 많은 역사 자료를 확보했지만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건 아니라고 보았다. 기독교방송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서사를 어떻게 전개할지 고민이 많았다. 그러다가 지난해 5월 초, 문동환 목사님을 처음 찾아가 뵈었는데 노환

탓에 회고할 만큼 말씀을 잘 꺼내지 못하셨다. 소설가이기도 한 김어흥 작가가 문동환 목사님을 억지로 인터뷰하기보다 그의 말투를 반영한 내레이션을 집필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심용환 작가가 서사를 전부 끌고 갈 수 없기에 심 작가와 문동환 목사가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기로 했다.

Q. 북간도를 실제로 가보니 어떤 감흥이 들던가?

A. 직접 살아보진 못했지만 1970년대 한국의 시골 분위기였다. 그곳에 가기 전에 공부를 열심히 했고, 현재 남아 있는 유산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태극문양, 무궁화, 십자가가 새겨진 막새기와와 어두컴컴한 동굴에 태극기와 이름을 적은 풍경, 두 장면이 이 영화의 핵심 이미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고향을 떠나 먼 곳으로 가서 조선 민족의 혼을 지키는 모습이 무척 감동적이었다.

Q. 기독교방송이 만든 콘텐츠임에도 종교색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 보는데 부담이 없었다. 이 영화가 다루는 독립운동의 의미는 종교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A.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 잘 살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현실이지 않나. 물론 자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진 않지만 갈수록 그 수는 줄어들고 있다. 특히 개신교는 과거에는 정치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정치적 발언과 행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물론 그들 전부를 폄하할 수는 없다. 정말 나라를 걱정해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 어쨌거나 모두가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100년 전 기독교인들은 왜 총과 십자가를 같이 들었을까.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시편 126편 5절을 얘기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손들이 더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지금 사회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 <씨네21> 중에서

십일월

박영근

나 또한 십일월의 저 바람 속으로 무거운 몸을 부리고 싶다

바람은

나무들이 끊임없이 떨구는 옛 기억들을 받아

저렇게 또 다른 길을 만들고

홀로 깊어질 만큼 깊어져

다른 이름으로 떠돌고 있는 우리들 그 헛된 아우성을

쏟어주는구나

혼자 걷는 길이 우리의 육신을 마르게 하는 동안

떨어질 한 잎살의 슬픔도 없이

바람 속으로 몸통과 가지를 치켜든 나무들

마음속에 일렁이는 잔등殘燈이여

누구를 불러야 하리

부디

깊어져라

삶이 더 햇볕은 날들을 받아들일 때까지

헌금 영수기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고희은 광새롬 광정자 구재원 김광일 이부용 김금순 김남종 오복순 김도운 김명하
 오형일 김미숙 김성순 김수경 김연정 김영순 김영희 김일량 이은옥 김정길 최숙화
 김종문 지명주 김종철 고영애 김준호 광혜자 김지해 김진우 임미진 김진혁 신다현
 김태한 김필순 김형옥 김혜라 나희덕 남선옥 노신후 마재국 손의나 문금석 박기영
 박노수 남인자 박미희 박범희 박숙미 박인혁 고숙이 박해숙 방신혁 서수진 서원금
 서혜원 소광섭 김숙희 송남필 신영신 심창현 안미순 안성호 김희숙 양현지 우순덕
 유경주 유무영 백현주 윤수연 윤영미 은종인 이광섭 김수연 이국노 김민화 이미정
 이미휘 이순용 김신실 이순이 이왕준 송상경 이우상 이계월 이인웅 오송경 이재선
 이종후 이한나 이한림 김명희a 이행진 이현죽 임광호 임당재 임성택 홍순위 임진엽
 장영숙 장원호 박성희 전찬익 이은자 정다운 홍예선 정이든 정두리 정윤성 서효진
 정현모 조경자 조관행 홍선희 조두희 오연훈 조병무 송양진 조병주 조영순 주은경
 최 숙 최옥자 최진성 최영은 최 현 하현일 하현철 최성애 한상경 홍윤선

감사헌금

강승일 강혜린 광 인 김영란 김일재 김주희 김향자 송유나 오민용 유성애 이광재
 이주은 류건형 정상준 정확성 김현숙 조병무 송양진 조성일 최정우 이윤숙 무명3
 나오미 1여성교회

생일감사헌금

김형린 박기영 박해남

녹색꿈헌금

강승일 김일재 김향자 윤미경 윤수진 이영하

예배 및 모임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아부예배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예배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예배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예배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1청년부모임	13:30	지하다목적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일·월 쉼)
2청년부예배	13:30	청년회실			

교회소식

1. 영화관람 : 영화 ‘북간도의 십자가’를 오늘 오후 2시 용산 CGV에서 상영합니다. 관람 신청을 하신 분은 1:20 교육관에 모여 주세요. 함께 영화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2. 선교회 총회 : 다음 주는 선교회 총회입니다. 선교회별로 모여 일 년 사업을 정리하시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 명단을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임원회 보고 : 24일 분기임원회가 열립니다. 각 부서는 보고서를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교육부회의 : 교육부회의가 오늘 12:20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5. 신앙실천 : 가을볕을 쬐며 천천히 걷기기도를 해보세요.

* 식사 대접 : 박준민 최광희

* 떡과 커피 대접 : 안길상 이형숙

	설교본문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다음주	눅 13:18-21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김재홍
		2부 김기석	곽권희	이왕준	이재훈
11월	1부 영접위원	김종락	헌금위원	박영신	
	2부 영접위원	장원호 권혁순	허신열 유경순	이은주 강금연	
	2부 헌금위원	조문규 서정순			
식당봉사	오늘	정현숙 백성래 임영선 서이순 이완구	김경희 김종성 김광일		
	다음주	김현주 김문주 홍복선 허정윤 박효선	전정현 이재삼 한성건		
설거지봉사	3남선교회 (오늘) 4남선교회 (다음주) 커피봉사 6여선교회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교회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